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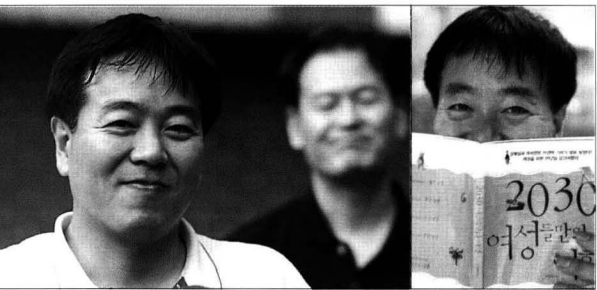
두 여행기자의 경험 못한 또 하나의 풍경 찾아 떠나기



그들은 같은 길을 다녔다. 속초로, 춘천으로, 청원으로, 변산반도로, 땅끝마을로. 그가 간 곳은 그역시 간 곳이었다. 하지만 같은 곳에서 누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노을'을 만나는가 하면 누구는 '홍차빛 노을이 가득한 바다'를 보고 온다(태안반도). 또 누구는 '평범한 동네에서 느끼는 비범함'을 즐기고 오지만, 누구는 '라벤더 허브향에 살포시 내려앉은 여심'을 훑쳐보고 오기도 한다(청원). 그들은 같은 길을 다니기는 했지만 한번도 같은 길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가장 낯선 존재이기도 하다.

두 여행기자의 첫 인연은 책꽂이에서 이루어졌다. 7월 초 <우먼센스> 국건 부장(41)은 《몸이 행복해지는 여행》을, <문화일보> 이경택 차장(41)은 《2030 여성들만의 여행》을 냈다. 다행히 서점의 책꽂이에서 보는 풍경은 같았다. 서점에서의 그들은 더 이상 여행가





이경택

가 아니라 다른 책들과 함께 누군가의 시선을 기다리는 풍경이었다.

이경택 “사실 많이 늦어졌어요. 원래 출판사에서는 2월에 내자고 했는데 제가 전업작가가 아니다보니 기사마감에 쫓겨 미뤄진 거죠. 2월에 냈으면 1,000부는 더 팔렸을 거라고 출판사 직원이 아쉬워하더군요. (웃음)”

국건 “저도 그래요. 작년부터 저희 회사 출판팀에서 책을 내자는 제의가 있었는데 우먼센스 기자나 편집부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몸이 편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야근도 야근이지만 매달 사나흘은 철야를 해가며 마감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요. 그러다 출판팀 압력(?)도 심하고 스스로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겠다 싶어 올 2월에 큰맘 먹고 회사와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죠. 책을 마무리해야 하니 내 시간을 갖겠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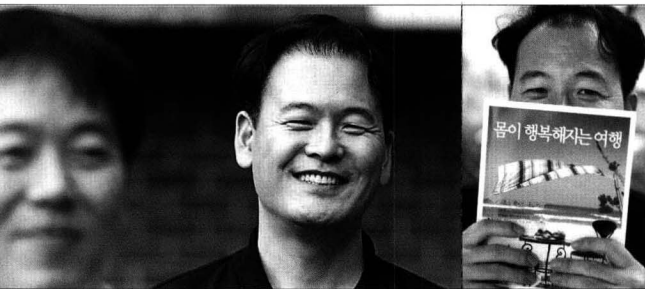
국건 부장은 1990년대 들어 여행전문기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국내 여행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다. 인터넷은 물론이고 지금처럼 색션화된 신문 기사나 여행지를 소개하는 TV 프로도 많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여행정보들이 그가 일하는 여성지에서 나왔다.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여성지에 나오는 부록으로 치면 수십 권이 넘는다.

그에 비해 이경택 차장이 신문사에서 여행을 담당해 취재를 시작한 건 1998년부터다. 남들처럼 놀러가는 건 좋아했지만 그렇다고 여행에 특별한 취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의지와 무관하게 보직을 받아야 하는 신문사의 특성상 싫어도 해야 할 처지였다. 그런데 막상 다녀보니 여간 흥미로운 일이 아니었다. 여행지를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롭게 보여주는 것 역시 창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경택 “현장 취재를 많이 가다보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볼거리, 먹거리, 잠자리가 그것인데 저도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게 현장체험인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고유의 볼거리, 먹거리, 잠자리를 찾아보면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 되죠. 특히 이번 책에서는 미용, 건강, 감성, 쇼핑 등 여성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에 역점을 뒀어요.”

국건 “사실 서점에서 이 차장 책을 보고 일간지 기자답게 참 발빠르구나 싶었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주제였거든요. 전 이번 책에 요리사진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동안 나온 여러 여행책자를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음식정보였거든요. 음식은 냄새로 먹고,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는다 해서 ‘삼시삼식 三匙三食’ 이라는 말이 있는데 책에선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만 요리가 맛갈스러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 차장이 ‘여행지 소개도 창작’ 이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 갈수록 여행전문기자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예전엔 단지 있는 거 보여주고 설명해 주면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여행가방을 꾸렸지만 이제는 색다른 주제를 던져주지 않으면



국건

좀처럼 반응하지 않는다. 특히 대부분의 여행지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고 여유만 있다면 해외를 다녀오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람들의 여행정보욕도 다양하고 까다로워졌다.

이경택

“코디네이터라는 말이 있죠. 여행가에게도 해당됩니다. 어쩌면 취재하고 촬영하는 건 2차적인 일인지도 몰라요. 뭘 먹고, 어디서 자고, 무엇을 경험하고… 여성이면 여성, 가족이면 가족, 연인이면 연인 그 특성에 맞는 코스를 잡아주어야 하죠. 특히 여성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보다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낯설고 모험을 즐기는 코스보다는 안전하고 정서적이면서 감각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해주어야 하죠.”

국건

“맞아요. 어디가 좋더라, 달려가서 이것저것 훑어보는 여행은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유홍준보다 더 좋은 답사기를 쓸 자신도 없구요. 대신 전 여성지에서 가족, 여자친구,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누이랑 올케 이런 식으로 여자끼리 혹은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을 많이 기획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가족중심, 테마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겠다 생각했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실속 있잖아요. 특히 큰맘 먹고 떠나는 여성들에게는 그런 게 더더욱 안 먹히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행전문기자들의 비애는 여기에 있다. 자신보다는 독자를 염두에 두고 이러저러한 설정을 하다보면 '일상에서 벗어나 게으름을 만끽할 수 있는 자유'라는 여행의 참맛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가끔은 여행이 '고통'이기도 하다.

감성적인 성격의 이경택 차장 같은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의 특성 때문에 자신의 내면 풍경에 충실할 수 없다는 게 고민이다. 일단 여행지에 도착하면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라는 특정 상황에 자신의 감정을 몰입해야 한다. 월간지 기사는 더 심한 편이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한 달씩 앞선 절기를 담아내야 하는 것은 월간지 기자들에게 늘 골칫덩이다. 아직 오지 않은 풍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건

“한정된 여행지를 다니다보면 관형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들고… 한두 번은 다녀왔던 곳이라 어떠어떠하다는 것은 이미 알죠. 그렇다고 빼놓을 수는 없고, 매번 똑같이 보여줘서도 안 되구요.”

이경택 차장은 9월에 또 한 권의 책을 낸다. 현장사람들의 삶과 인정을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풍물기행서이다. 물론 유명하다거나 새롭다거나 그런 곳을 찾아가는 여행은 아니지만 어촌이나 산골짜기, 주어진 환경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 그 삶에서 묻어나는 인정을 접할 수 있는 책이라는 귀뜸이다.

혼자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여행은 누군가의 안내를 받을 때 더욱 풍요로워진다. 국건 부장이나 이경택 차장 역시 자신보다는 남들을 위해 길을 나서는 안내자들이다. 다른 바람이 있다면 친절한 안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남의 이야기와 다녀와서의 내 이야기'가 어우러져 여태 아무도 다녀오지 못한 또 하나의 풍경을 여행자들 스스로가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다. **◆◆**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